다름 이해 소통
교실에서의
다문화교육

27차시 스토리텔링과 극화수업의 다문화교육 적용

1. 스토리텔링 수업 사례

1) 다문화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 수업 방법

(1) 캐릭터 활용

① 등장인물 그대로 가져오기

다문화 관련 영상을 보고 등장인물을 그대로 가져오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상 인터뷰, 가상 토의, 가상 역할극 등을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음.

② 등장인물 변형하기

등장인물을 약간 변형하여 활동할 수 있음. 영상에서 엄마가 외국인이었다면 아빠를 외국인으로 하거나 국적을 달리하는 등 가상하고 스토리를 바꿀 수 있음

③ 새로운 캐릭터 투입하기

기존의 스토리에 새로운 캐릭터를 투입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다른 다문화 학생이 또 전학을 왔거나, 등장인물의 가족 중 한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는 등으로 사건을 전개할 수 있음.

④ 학습용 캐릭터 활용하기

의도적으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용 캐릭터를 활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문제유발형, 문제해결형, 학습동반형, 스토리 해설형 등 기존의 스토리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끼어드는 형태로 구성함.

(2) 스토리 구성변화

① 스토리 바꾸기

기존의 스토리를 바꾸는 활동.

② 스토리 쪼개기

등장인물 중 특정 인물 관점에서의 이야기만 따로 구성하는 활동.

각자의 이야기를 합치면 내용이 더 풍요로워 질 수 있음.

③ 스토리 지연시키기

기존의 스토리에서 특정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활동.

④ 스토리 압축하기

서로 다른 긴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하여 비교하는 활동.

⑤ 스토리 번안하기

스토리가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운 수준일 경우 학습대상의 수준에 맞게 번한하는 활동

2) 다문화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 수업 사례

학습주제	정체성, 꿈, 다문화가정이해	대상	청소년
스토리	완득이, 김려령(소설가) 저, 창비 (영화로도 있음)		
내용	도완득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공부는 못하고 싸움을 잘 하는 일명 문제아다. 캬바레에서 춤 가르치는 일을 하는 난쟁이 아버지와 친 삼촌이 아닌 약간 모자란 삼촌과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으며 가난한 살림으로 학교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이다. 완득이의 옥탑방 옆 건물에 살고 있는 담임 선생님 똥주는 입만 열면 막말, 자율학습은 진정한 자율에 맡기는 독특한 교육관으로 학생들에게 '똥주'라 불린다. 동주는 학교에서는 숨기고 싶은 가족사와 사생활을 폭로하여 완득을 창피하게 만들고, 집에 오면 학교에서 수급 받은 햇반마저 탈취하는 행각으로 완득을 괴롭힌다. 그래서 완득이는 똥주를 데려가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똥주 선생님은 표현 방식이 서툰 것뿐이지 누구보다 완득이를 생각하는 선생님이다.		

내용	그리고 완득이가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교회의 주인은 똥주였다. 똥주 선생님은 교회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완득의 어머니를 찾아 만나라고 권유했지만 완득이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결국 완득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 앞에 몰래 가져다 놓은 도시락을 계기로 조금씩 마을을 열게 되고 결국 어머니와 만나게 된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던 똥주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완득이의 인생은 조금씩 변화되고 싸움에 일가견이 있던 완득이는 복싱을 배우게 된다. 복싱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소년의 이야기.

도입	●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자신의 경험 생각해보기> -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 그럴 때 자신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인공 소개 및 내용 소개> - 완득이는 18살. 아버지는 꼽추병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과 매일 부딪힙니다.

⇩

상황 이해 및 모둠 협의	●상황 이해 ●모둠별 스토리 구성	<캐릭터 활용하여 스토리짜기> - 모둠별로 방법 한 가지씩 정해 봅시다. ① 완득, 똥주, 완득의 아버지, 완득의 어머니에게 가상인터뷰하기 ② 등장인물 변형하기 -완득 부모님의 국적 -똥주 선생님의 성격 -완득 부모님의 성격 등 ③ 새로운 캐릭터 투입하기 -학교 친구나 다른 선생님 -체육관 선생님 등 - 방법을 정했다면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발전적 문제추구	●모둠별 발표 ●연출의도 설명 및 질의응답	<모둠별 발표> -모둠별로 구상한 이야기와 왜 그렇게 구상했는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리딩, 시연, 등 다양한 방법)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

정리 활동	●활동 정리	<정리> -<완득이>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구상해보며 자신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2. 극화수업 사례1: 정지화면 연출(타블로)

1) 다문화교육에서의 정지화면 연출(타블로) 절차

(1) 4명씩 모둠 구성

(2) 교사의 주제제시

- 구성원 모두 연기에 참여해야 함.
- 한 사람 당 한 대사만 구사

(3) 모둠 토의를 통해 장면 구성

(4) 모둠별 발표

- 임의의 순서로 한명씩 연기

(5) 발표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맞추기

(6) 재 연출

- 왜 이렇게 구성하여 연출하였는지 설명

(7) 질의응답 및 마무리

2) 다문화교육에서 정지화면 연출(타블로) 수업사례

학습주제	각 나라의 식사예절	대상	초등, 청소년
정지화면	여러 나라의 식사장면		
내용	각 모둠별로 국가마다 다양한 식사예절 사례를 하나씩 정한다. <수업자료 참조>		

<수업자료>

1.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

①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든다. ②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들지 않으며,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숟가락을 상 위에 놓는다.

③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그릇에 걸치거나 얹어 놓지 않고,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는다.

④ 숟가락으로 국이나 김치 국물을 먼저 떠먹고 나서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먹는다.

⑤ 밥과 국물이 있는 김치, 찌개, 국은 숟가락으로 먹고, 다른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다.

⑥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⑦ 숟가락으로 반찬이나 밥을 뒤적거리는 것은 좋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골라내거나 양념을 털어내고 먹지 않는다.

⑧ 먹는 도중에 숟가락에 음식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하며, 밥그릇은 제일 나중에 숭늉을 부어 깨끗하게 비운다.

⑨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은 각자 접시에 덜어 먹고, 초장이나 초고추장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먹는 것이 좋다.

⑩ 식사 중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얼굴을 옆으로 하고 손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려서 다른 사람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⑪ 너무 서둘러서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춘다.

⑫ 어른과 함께 먹을 때는 먼저 어른이 숟가락을 내려놓은 다음에 따라서 내려놓는다.

2. 일본

<식사 예절> 일본의 밥상은 젠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밥상보다 작고 낮다. 그릇은 요리에 따라 다르며 젓 가락만 사용한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젓가락을 들며, 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이 나 국을 먹는 것이 특징이다.

<젓가락 사용법> 일반적으로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손에 쥐는 쪽 이 아래쪽보다 굵어서 사용하기 쉽다. 생선을 많이 먹는 일본의 경우 생선가시를 바르는 용도로서 끝이 뾰족하며, 밥을 젓가락으로 긁어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가정에서는 개 검정색은 아버지용, 빨간색은 어머니용 등으로 개인 젓가락을 정해 두고 사용하고 있다. 손님 을 접할 때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것이 보통이며, 한국처럼 가정에서 접할 때 나무젓 가락을 내놓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들어 입에 갖다 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카레라이스나 스프를 먹을 때 외에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3. 중 국

<식사 예절> 중국 음식은 큰 접시에 담아 순서로 한 가지씩 식탁에 내놓는데, 가운데의 회전 원탁을 돌려 가면서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다. 입구에서 먼 쪽이 주빈석이고, 주인은 주빈의 맞은편에 앉는다. 상차림은 한 사람당 개인 접시 2~3개와 탕 그릇 하나, 중국식 숟가락과 젓가락, 술잔이 놓이는 데, 중앙의 조미료, 향신료, 술은 돌려가며 모두 함께 사용한다.

<젓가락 사용법> 중국의 젓가락은 10명이 넘는 가족이 둥근 상에 둘러앉아 식탁 중간에 음식을 놓고 먹기 때문에 길고 뭉툭하며, 기름기가 많은 중국 음식에는 쇠 젓가락보다 나무젓가락이 편리하다. 중국에 서도 일반적으로 스프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부분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4. 인도, 중동지역의 식사 예절(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한다(왼손은 일상생활에 서 지저분한 일을 해결하는 데 쓰인다). 먹기에 적당한 크기로 음식을 집고, 손가락도 몇 개만 사 용하며, 적절한 손동작으로 모양을 만든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 맛을 냄새나 혀를 통한 미각뿐만 아니라 손의 감촉으로 느낀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이나 도 구는 종교적 기준에서 보면 부정 한 것이고 자신의 손이 다른 도구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5. 요루바 사람들의 식사법(손으로 식사하는 나라)

요루바(Yoruba) 민족은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다. 인구는 약 2,000만 명 정도이며 정교한 신화와 전통 종교를 갖고 있고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한다. 요루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작물의 하나인 얌을 삶아 뜨거운 물을 섞어 가며 절구에 찧거나, 또 다른 주식 작물인 카사바 가루를 뜨거운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다. 반죽 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서로 화를 즐기며 오른손을 사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떼어 내 동 그란 경단 모양을 만든다. 이때 손 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은 경단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 에 벌써 군침을 돌게 한다. 우아한 손동작으로 경단 모양을 만드는 요루바 사람들은 손을 사용해 서 음식을 먹는 식사 예절의 정수를 보여 준다.

6. 서양의 식사 예절

- 식탁과 가슴 사이의 거리는 10cm 떨어지도록 앉는다. 이 때 다리는 꼬지 않는다.
- 냅킨은 무릎 위에 놓아두며 입술이나 손가락에 묻은 것을 닦을 때 사용한다. - 나이프와 포크는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로 사용한다.
- 설탕이나 혹은 소금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일어서서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건네 달라 고 말한다.
- 식사 중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위에 팔(八)자로 놓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접시 중앙의 오른쪽에 나란히 놓아둔다.
- 접시를 들고 남아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백과사전

도입	●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다른 나라의 식사시간 이미지 보여주기> - 손으로 음식 먹는 사진을 보고 느낌 이야기 하기 <학습안내> - 나라마다 다른 식사예절 모습을 알아보고 왜 그러한 모습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황 이해 및 모둠 협의	●상황 이해 ●모둠별 장면 구성 ●모둠별 발표	<모둠별 장면구성>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요루바, 서양 식사시간을 주제로(나라명은 미리 제비뽑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한 사람당 한 대사씩 하는 장면을 구성합니다. <모둠별 발표> -모둠 안에서 한사람씩 임의의 순서로 발표합니다. <발표내용 퀴즈> -어느 나라의 식사시간일까요? -상황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

발전적 문제추구	●모둠별 재 연출 ●연출의도 설명 및 질의응답	<모둠별 재 연출> -모둠 원들이 한꺼번에(동시에) 다시 연출 해 보겠습니다. -모둠의 대표는 왜 이렇게 구성하였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

정리 활동	●활동 정리	<정리> -나라마다 식사문화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왜 그러한 문화가 생겼는지를 알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3. 극화수업 사례2: 역할극

1) 다문화교육에서 역할극 수업 목적

역할놀이의 목적은 교실 내에서 재현되는 사회현상속의 역할들을 이해하여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음

2) 다문화교육에서 역할극 수업 효과

(1)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함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관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함. 다양한 감정이입이 가능하기에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역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함.

(2) 소수민족의 어려움에 공감을 갖게 함

주류민의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 특히 이주민 자녀의 역할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험하기 어려움. 역할극을 통해 경험해 봄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음

(3)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고려하게 함

역할극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등을 재현하며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토의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응책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음. 여러 사람이 함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기에 다양성을 기반 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3) 다문화교육에서 역할극 수업 시 유의점

문화적 차이와 편견에 초점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역할놀이 주제로 다룰 경우 자칫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진 문제에 대하여 불쌍하다는 등의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다문화가정 자녀가 갖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다문화교육에서 역할극 수업절차

(1) 교사가 상황 제시
(2) 참여자 선정
(3) 즉흥적 실연
(4) 토의 및 평가
<토의 내용>
① 각 배역의 행동 결과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이해.
②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질문
예) 00역을 맡은 00친구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③ 활동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나 결론 등과 다른 방식의 대안
④ 관찰자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자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좋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였는지 먼저 듣는 것이 선입견을 막을 수 있음

(5) 재 실연
① 1차 실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이 참여
② 토의나 평가에서 나온 새로운 분석이나 대안을 바탕으로 진행
(6) 재 토의 및 평가
재 실연에서 진행된 내용이 실제 가능한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함

5) 다문화교육에서 역할극 수업사례

학습주제	차이와 차별(피부색 차별)	대상	초등, 청소년
역할극 상황	<까만달걀> 벼릿줄 저, 샘터사 피부색의 차이로 차별 받고 있는 사례		
내용	재현이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피부색이 까만 미국인이다. 재현이도 아빠와 마찬가지로 피부색이 까맣다. 재현이 아빠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신다. 디자인 공부를 하였기에 여기저기 취직을 하려고 하였지만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재현이는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매일 따돌림을 당한다. 특히 성구라는 아이는 날마다 재현이를 놀린다. 재현이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빠는 어느 날 밤을 새워 달걀을 삶고, 그 달걀에 검정 매직으로 모두 까맣게 칠하였다. 다음날 학교로 그 달걀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까만 달걀을 받은 아이들은 이것은 달걀이 아니라고 하였다. 껍데기를 벗겨보라고 하자, 삶은 달걀이 나왔다. 재현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껍데기가 까만 달걀도 껍데기를 벗기면 하얀 달걀이 나오는 것처럼 피부색이 까매도 속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입	●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외국인 친구 이미지 보여주기> -가장 친구로 삼고 싶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누구인가? -가장 친절할 것 같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누구일까? <학습안내>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 친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 이해	●상황 이해 ●주인공의 마음, 지은이의 생각 느끼기 ●주제 알기	<상황제시> -동화책 “까만 달걀”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준다. <참여자 선정> -역할극을 할 재현이, 재현이 아빠, 친구들3명 역할을 할 학생을 정한다. <즉흥적 실연> -5명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나와서 역할극을 한다.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재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본다.

⇩

발 전 적 문제추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생각정리 ●의견 공유 및 토론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 토론> -자신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 봅시다. -그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도 생각 해 봅시다.

⇩

정리 활동	●재 실연 및 재 토의	<재 실연 및 재 토의> -토의내용에 비추어 두 번째 역할극을 한다. -두 번째 실연한 내용에 비추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해 봅시다.